

코리아! 최초의 천주교 세례자, 수사(修士)

순교자 '권빈센트'와 두사람의 권율 權慄 그리고 홍호연 洪浩然

천주교 성인(聖人)에 권씨가 3명, 흥씨가 3명이 고 그 다음 준성인인 복자(福者)는 권씨가 3명 흥씨가 7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최초의 세례자는 이승훈(平창이씨, 李承薰, 1756 ~ 1801)이고 1734년 1월, 북경에서 선교사 '그라몽'으로부터 받았고 최초의 순교자도 이승훈이며 첫 입국 선교사도 주문모(周文謨, 周國人, 1750~1801)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 시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탕수바위(熊川·고문가이)에 그들이 쌓은 웅천왜성(熊川倭城)에 세스페데스(Céspedes)라는 스페인 신부가 1593년 12월 27일 쓰시마 섬(對馬島)과 부산포를 거쳐 들어와 1595년 6월까지 왜군 천주교인들을 위한 미사를 집전하고 세례, 고해성사 등의 왜군 군중신부 역할을 했고 조선인에게도 선교를 하고 많은 어린 사람을 잡아간 것도 사실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대행사의 황금십자가 반환과 세스페데스 공원 문제등이 있지만 당시에 이미 풍신수길이 천주교를 금지 했음에도 소서행장 주둔지인 창원지역에 은밀히 천주교를 전파하였다는 것이다. 곧 풍신수길이 이를 알게 되어 세스페데스는 일본으로 돌아간다. 물론 조선인 신자도 수천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제2의 십자군 전쟁이고 유태자본과 영국여왕 그리고 하수인인 선교사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설도 부정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차후에 다시 논하기로 한다.

당시에 많은 양민이 잡혀가는데, 의병장 권극평(權克平)의 조카뻘 되는 12세의 권씨 아이도 그 중 하나로 대마도에 있는 소서행장의 누이 동생집에 보내졌는데 세스페데스가 귀로에 본토로 데리고 가서 아마쿠사의 코레지오 신학원에 입학시킨다.

소서행장, 즉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세례명: 아우구스티누스, 1555~1600)는 일본 상인출신의 무장이고 임진왜란 당시 가등청정(加藤清正)과 함께 2대 침략군 장수였으며 당시 대조선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대마도주 종의지(宗義智)의 장인이었다.

여기서 '빈센트(승리자)'權은 조선인 의병 대장의 아들이고 정을 출신이라는 것인데, 포루투칼령 마데이라 섬 카마치에는 이때 팔려간 조선인 노예들의 서글픈 망향가가 있다. 지금도 축제가 열리는데 그 노래는 놀랍게도 한국어이다. 게다가 이 섬은 유명한 축구선수 호나우두(Ronaldo)의 고향이니 차별근 닦은 그는 같은 팟줄(?)의 인연이 있는가 한다.

'덕천막부'가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으로 천주교를 탄압하자 천주교 신자를 가진 노예주인들은

급히 조선인 천주교 신자를 포루투칼 상인에게 혐값에 대량 넘기게 된다. 아니면 멸문지화의 연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참으리다 CHAMARITA(조선노예의 포루투칼 생존 한국어 농악민요 채보 가사일부)는 '참으리다 참아참아 아무리 슬퍼도 참아, 살려니까 죽게 참아 아무리 슬퍼도 참아 아 뭐래도 수구리고 이목숨 위해서 사니…(중략) 할머니도 울었다오 도마리 모도 시데 모데 (그만 돌아와요 돌아와)' 인데 여기다가 '권교리 일어나 배재 목책 쌓아 방어하니 목책 격퇴하니 천녀와 화합 일등 복복이 성자聖子로다' 라는 가사도 나온다.

교리는 정5품 한림원 벼슬이니 권교리는 교리(校理) 권율을 말하는데 대덕산 배재(梨峙)신당에 모셔진 신령이라고 한다. 교리 권율이 바로 '빈센트 권'의 조상이라고 한다. 더구나 이 곡조는 정읍지방 민요와 같다 것이다.

그럼 이자대첩의 권율장군과 권율 교리는 무엇인가? 죽보를 찾아보면 권교리 권율(1435~?)은 주밀공파 18세 이고, 도원수 권율(1537~1599)은 주밀공파 22세로 양촌 권근의 부친 권희(權僖, 주밀공파 15세, 1319~1405)의 후손이니 춘수로 따지면 멀고도 먼 관계이다. 탄생 연도도 100년이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임진왜란의 이자대첩과 금산전



나카사키 고려다리



도공들의 한글 도자기

자를 배출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권빈센트'의 원력(願力)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는 복자(福者)이나 곧 성인(聖人)의 반열에 오르리라 믿는다.

그가 화형 당한 언덕은 골고다와 비슷하여 1597년 26명의 천주교 신자가 풍신수길의 명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聖人)이 되었고 지금 '일본 26성인 순교자(日本二十六聖人殉地 西坂公園)'로 남아 있다. 아쉬운 것은 '권빈센트'의 흔적은 거기에 아직 없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 큐슈지방에 십여만명의 조선인 포로가 있었고 그 중 1만명이 천주교 신자였고 그들이 모금하여 만든 '성 로렌조'에게 바친 천주교회당은 지금 고려교(高麗橋) 건너편 신사(1637년 건립)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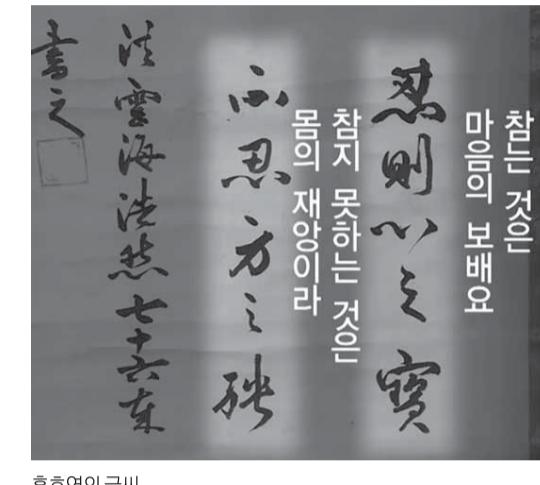
여기서 '빈센트(승리자)'權은 조선인 의병 대장의 아들이고 정을 출신이라는 것인데, 포루투칼령 마데이라 섬 카마치에는 이때 팔려간 조선인 노예들의 서글픈 망향가가 있다. 지금도 축제가 열리는데 그 노래는 놀랍게도 한국어이다. 게다가 이 섬은 유명한 축구선수 호나우두(Ronaldo)의 고향이니 차별근 닦은 그는 같은 팟줄(?)의 인연이 있는가 한다.

'덕천막부'가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으로 천주교를 탄압하자 천주교 신자를 가진 노예주인들은 급히 조선인 천주교 신자를 포루투칼 상인에게 혐값에 대량 넘기게 된다. 아니면 멸문지화의 연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참으리다 CHAMARITA(조선노예의 포루투칼 생존 한국어 농악민요 채보 가사일부)는 '참으리다 참아참아 아무리 슬퍼도 참아, 살려니까 죽게 참아 아무리 슬퍼도 참아 아 뭐래도 수구리고 이목숨 위해서 사니…(중략) 할머니도 울었다오 도마리 모도 시데 모데 (그만 돌아와요 돌아와)' 인데 여기다가 '권교리 일어나 배재 목책 쌓아 방어하니 목책 격퇴하니 천녀와 화합 일등 복복이 성자聖子로다' 라는 가사도 나온다.

교리는 정5품 한림원 벼슬이니 권교리는 교리(校理) 권율을 말하는데 대덕산 배재(梨峙)신당에 모셔진 신령이라고 한다. 교리 권율이 바로 '빈센트 권'의 조상이라고 한다. 더구나 이 곡조는 정읍지방 민요와 같다 것이다.

그럼 이자대첩의 권율장군과 권율 교리는 무엇인가? 죽보를 찾아보면 권교리 권율(1435~?)은 주밀공파 18세 이고, 도원수 권율(1537~1599)은 주밀공파 22세로 양촌 권근의 부친 권희(權僖, 주밀공파 15세, 1319~1405)의 후손이니 춘수로 따지면 멀고도 먼 관계이다. 탄생 연도도 100년이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임진왜란의 이자대첩과 금산전



홍호연의 글씨

투 또 진주성 쌔움의 권극평 의병장과의 관계는 무었일까?

또 여기서 홍호연(본명 홍운해(洪雲海), 1581~1657)이 등장하는데, 경남 산청군 오부면 중촌 출신이다. 진주성 합탁시 가족과 흩어져서 열 살 어린 나이에 과도직무(鍋島直茂)의 부대에 불집혀 일본 규수(九州) 사가(佐賀)에 포로로 끌려가 종아좌위 문(中野左衛門) 가문으로 간다.

후에 그는 문필가로 이름을 날리고 400년 뒤에 그의 유품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전시회가 열리는데 그것은 참을인(忍)자였다. 그리고 그는 후손의 인위를 위해 76세에 영주의 죽음과 함께 할복한다, 주목 할 것은 그 후손은 지금도 홍(洪)이라는 성을 그대로 쓰고 있고 얼마전 경남 진주국립박물관에서 임진왜란 당시 포로로 끌려간 홍호연(洪海)의 형제인 홍천해(洪天海)의 12대손 한국의 홍성대와 홍호연의 14대손 일본의 홍항부(洪恒夫)는 서로 만나 부둥켜 안고 감격해 했다.

이에 대한 것은 권문과 관련한 것도 아니고 홍호연이 천주교 신자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 천주교사에 있어서 권과 홍은 남다른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씨의 '참으리다 CHAMARITA'와 홍씨의 참을인(忍)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제 '권빈센트(權重勝)' 그의 원호이라도 고향 태인(泰仁)에 묻어 주는 방법을 대종회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 권씨종친회의 협조도 있어야 할 것이다.

빈센트權은 권중승(權重勝)이라 한 것은 빈센트(Vicente)가 '승리자'라는 뜻이고 그가 22세일 것으로 생각되어 본 기자 한 번 써본 것이니 괘념치 마시길 바란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가복음 제8장 34절)

(글 권철기자)

권기의 영가지(永嘉志)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국립공주대학교 산업유통학과 권기대 교수

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런 명성에 걸맞게 내부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외부적으로 전통문화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조상들의 발자취와 정체성을 창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발굴은 여전히 필요한 상태다.

안동 출신의 용만(龍巒) 권기(權紀, 복야공파 판서공계 23세, 1546~1624)가 편찬한 안동 읍지인 '영가지(永嘉志)'는 안동이라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적 이미지 구명(究明)은 물론 안동이라는 지역명(Local Naming)의 전통성을 확보하여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촉진에 공헌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가지」는 오늘날까지 협의의 관점에서 '안동의 가장 오래된 종합 인문지리지'라는 역사적 평가에 그치는 한계를 보여 왔다.

그러나 광의의 맥락에서 「영가지」가 내포하고 있는 학제적 전면목을 밝혀 브랜드마케팅(Brand Marketing) 및 리더십 맥락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및 오늘의 안동 현황

용만(龍巒) 권기가 나이 56세에 시작하여 1608년 63세에 완성시켜 편찬한 「영가지」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안동지역은 <그림 1>의 상단에서처럼 본부도(오늘날, 안동 시내), 임하현, 길안현, 일직현, 풍산현, 감천현(오늘날, 예천), 내성현(오늘날, 봉화읍에 해당), 개단부곡(오늘날, 영주), 춘양현(오늘날, 봉화), 소천부곡(오늘날, 봉화), 재산현(오늘날, 봉화군) 등 11개의 현(縣)을 두고 있었으며, 호구(戶口)는 5,587호이었고, 인구는 (5,587호×6명/1호구당)=33,522명으로 추정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안동시는 <그림 1>의 하단에서와 같이 1읍(邑) 13개 면(面), 10동(洞)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160,05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1>에서처럼 안동대도호부의 면적은 1,797.67㎢이었고, 오늘날의 면적은 1,522.1㎢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에 비해 오늘의 안동지역 면적은 길안면과 북후면의 면적이 합친 만큼의 275.57㎢로 크게 축소되었다.

특이한 점은 오늘의 안동은 조선시대의 안동도호부와 달리 안동 시내를 중심으로 각 행정구역이 애워싸고 있는 형국이었으나 조선시대의 안동도호부는 안동북부지역인 도산면, 와룡면, 예안면, 농전면이 제외되었고, 공간적 범위는 안동북부지역의 이웃인 봉화지역(춘양현, 재산현, 소천부곡, 내성현), 영주 지역(개단부곡, 예천군(감천현)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그림 1> 조선시대 및 오늘의 안동 행정구역



안동대도호부 11개 현



<표 1> 조선시대 및 오늘의 안동지역 면적

조선시대 행정구역	오늘 면적 (㎢)	조선시대 행정구역	오늘 면적 (㎢)
안동부 안동시내	534.52	안동시* 북부	85.12
임하현 안동임하	91.7	북후면	76.6
길안현 안동길안	200.04	서후면	65.35
일직현 안동일직	85.56	풍천면	94.21
풍산현 안동풍산	96.64	임동면	151.07
감천현 예천감천	64.96	남후면	63.14
개단부곡 영주단산	92.19	임하면	91.7
춘양현 봉화춘양	167.3	길안현	200.04
소천부곡 봉화소천	264.44	일직면	85.56
재산현 봉화재산	126.05	풍산읍	96.64
내성현 봉화읍	74.27	도산면	101.90
		와룡면	116.95
		예안면	163.9
		농전면	70.82
		남선면	59.1
합계	1,797.67		1,522.1

참고 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ha = 0.01㎢로 단위 변환

참고 2: 안동부는 북부, 북남, 북동, 부서 및 안동시 10개동 포함

참고 3: 안동시는 중구동 포함 10개동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임원님의 미납된 임원회비는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대종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